

미국 음악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동향 분석

신 혜 경*

본 연구는 질적 방법을 사용한 음악교육 연구를 분석하여 음악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동향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음악교육 학술지 CRME와 JRME에 수록된 질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을 연구 영역, 연구 대상 및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 방법, 질적 자료 수집법, 타당성 검증 방법의 범주에서 분석하였다. 질적 방법을 사용한 음악교육 연구는 총 81편으로 해당 기간의 전체 연구 478편 중 16.9%를 차지하였다. 연구 영역에서는 음악교사 인식 및 음악교사교육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포함한 음악교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질적 접근법은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지의 비중이 높았으며, 다양한 유형의 방법론적 혼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하였으며, 면담법과 관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 검토와 삼각검증법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음악교육 연구, 질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

차 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학술지를 통한 음악교육 연구 동향 고찰에 관한 선행연구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자료 선정 및 연구 절차
 - 2. 분석을 위한 범주 및 분류항목
 - 3. 연구의 제한점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1. 분석 대상
 - 2. 분석 범주별 결과
 - 3. 논의
- IV. 결론 및 제언

* 건국대학교 음악교육연구소 연구원(hshin10@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질적 연구의 기원은 19세기의 문화인류학자들이 사회와 문화를 해당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접근했던 시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여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의 구조화된 방법론과 함께 이론적인 기반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전통적인 학문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복잡적이고 다원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총체적이고 맥락적인 시각에서 연구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개인의 주관성, 정체성, 평등과 같은 주제들과 연결되면서 교육 연구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쳐왔다. 교육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는 수업 상황을 해석적으로 기술하여 최초의 질적 접근으로 기록되는 ‘교실에서의 삶(Life in classrooms, Jackson, 1968)’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현장연구를 위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연구의 전통이 문헌연구와 양적 연구의 결과물을 통하여 변화와 발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장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 패러다임으로써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이다.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자가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과 함께, 연구자가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접근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김영천, 1997; Bresler & Stake, 1992; Flinders & Reardon, 2002; Hatch, 2008).

이러한 경향은 음악교육 연구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음악교육분야에서 초기의 질적 연구는 학습자의 선율 지각과 창작 방식에 관한 연구(Bamberger, 1977)를 비롯하여 질적 방법을 사용한 음악교육 박사논문들을 위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아동들의 리듬 이해에 관한 연구(Uptis, 1985), 음악수업에서 컴퓨터의 역할과 영향에 관한 연구(Bresler, 1987), 음악수업에서 아동의 창의적인 문제해결과정에 관한 연구(DeLorenzo, 1987) 등이 초기의 질적 방법을 적용한 학위 논문들이다(Bresler & Stake, 1992). 이

후 질적 연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675편의 음악교육 박사 논문 중 148편(21.93%)에 질적 방법이 사용되었다(Kantorski & Stegman, 2006).

음악교육 학술지에 나타난 질적 연구는 1984년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JRME)에 첫 수록을 시작으로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CRM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IJME) 등을 비롯한 여러 학술지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석문주, 2004; Lane, 2011; Yarbrough,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방법론에 대한 표준화된(standardized)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연구자들의 주관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현상의 가변성을 전제로 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보편성과 특수성이 상호 관련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광범위하면서도 다원화된 학문적 전통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한편 합의된 규정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질적 연구의 인식론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조용환, 1998; Flinders & Recharadson,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음악교육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교육 학술지인 CRME와 JRME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내용적, 방법론적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술지를 통한 음악교육 연구 동향 고찰에 관한 선행연구

음악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와 학위논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동향 고찰은 학계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왔다. 이 중 학술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표 1).

우리나라의 경우 학술지 「음악교육연구」에 수록된 논문들을 연구 방법, 적용 대상, 연구 영역의 항목에서 분석하여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과제 및 전망을 고찰한 연구(최은식, 2000)가 있다. 외국의 음악교육 연구 동향은 음

악교육 학술지 JRME, CRME, Update (Update: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IJME의 연구 동향을 고찰한 연구(석문주, 2004), JRME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김미숙, 2001; Yarbrough 1984)들이 있었으며, 연구 영역,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의 항목에서 살펴보았다.

방법론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여섯 개 음악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기술연구와 실험연구 중 인용도가 높은 26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Schmidt & Zdzinski, 1993)와 CRME와 JRME에 수록된 음악교육 질적 연구의 저자, 방법론, 주 인용문헌을 분석한 연구(Lane, 2011)¹⁾가 있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 학교급 등에 따른 특성 및 경향을 분석하거나(Dreves, Cruse, Mills, & Sweet, 2008; Ebie, 2002; Kratus, 1992), 저자의 저술 논문 수, 논문 인용 횟수, 저자 및 연구기관을 분석한 연구(Britten & Standley, 1997; Standley, 1994), 음악교육분야에서 여성 연구자의 소속과 저술, 연구 방법을 분석한 연구(Grashel, 1998)가 있었다.

학술지의 인용 횟수를 분석하거나(Hamann & Lucas, 1998), 세계 각지의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의 창간 연도, 논문 수 및 길이, 연간 발간 횟수, 논문 지원과 채택 비율 등에 관한 양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Price & Chang, 2000)도 있었다. 또한 학술지 편집위원의 성별, 학위, 지리적 분포를 조사하여 학술지의 특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Humpherys & Stauffer, 2000).

이외에도 편집위원과 저자들의 기술어(descriptor)를 통하여 학술지의 우수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LeBlanc & McCrary, 1991)와 학술지 CRME의 창간과정, 내용체제, 발간절차 등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한 연구(Grashel & LeBlanc, 1998)가 있다.

1) Lane(2011)의 연구와 본 연구는 분석 범주 및 하위 분류항목, 기간에서 차이를 가진다.

<표 1> 학술지를 통한 음악교육 연구 동향 고찰에 관한 선행연구

주제	연구자(연도)	대상(학술지)*	기간	분석항목
연구 동향 (전반)	Sample, D. (1992)	JRME, CRME, CME	창간**-1992	인용횟수(주제)
	최은식 (2000)	음악교육연구	창간**-1999	연구방법, 적용대상, 연구영역
	김미숙 (2001)	JRME	1991-2000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영역
	석문주 (2004)	JRME, CRME, Update, IJME	1992-2004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영역
	Yarbrough, C. (1984)	JRME	1953-1993	학위논문 관련도, 연구방법, 연구영역(연구대상)
	Yarbrough, C. (2002)	JRME	1953-2002	학위논문 관련도, 연구방법
	Yarbrough, C. (2006)	JRME	1953-2006	학위논문 관련도, 연구방법
연구 동향 (방법론)	Schmidt, C. & Zdzinski, S. (1993)	JRME, CRME, POM, JMT, CME, MJRME	1975-1990	양적 연구의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대상
	Lane, J. (2011)	JRME, CRME	1983-2008	질적 연구의 저자, 방법론, 주 인용문헌
연구 대상	Kratus, J. (1992)	JRME, CRME, CME	1961-1990	연령
	Ebie, B. (2002)	JRME	1953-2002	학교급/학년, 소속, 지역
	Deves, Y. et al. (2008)	JRME, CRME, CME	1991-2005	연령
저자	Strandley, J. (1994)	JRME, CRME, JMT	창간**-1982	저술논문 수/인용횟수에 따른 저자, 연구기관
	Britten, A. & Standley, J. (1997)	JRME, CRME, JMT	창간**-1992	저술논문 수/인용횟수에 따른 저자, 연구기관
	Grashel, J. (1998)	JRME	1953-1994	저술논문 수, 소속기관, 연구방법
학술지	Hamann, D. & Lucas, K. (1998)	JRME, CRME, CME, SJME, JBR, Update, QJMTL,	1990-1995	인용횟수
	Price, H. & Chang, E. (2000)	30개의 세계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	창간 연도, 논문의 수/길이, 발간 횟수, 논문 채택 비율 등
	Humpherys, J. & Stauffer, S. (2000)	JRME	1953-1992	편집위원의 성별, 소속기관, 학위, 저술, 지리적 요인

* JRM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CRME (*Bulletin of the Counci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Update (*Update: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IJM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CME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JMT (*Journal of Music Therapy*), POM (*Psychology of Music*), MJRME (*Missouri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QJMTL (*The Quarterly Journal of Music Teaching and Learning*), SJME (*Southeastern Journal of Music Education*)

** JRME(1953), CRME(1963), CME(1972), JMT(1964), 음악교육연구(1973)

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선정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1까지 최근 12년간 CRME와 JRME에 수록된 음악교육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CRME와 JRME는 음악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인용지수와 체제 등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음악교육 학술지로 밝혀졌으며(Hamann & Lucas, 1998; LeBlanc & McCrary, 1991; Price & Chang, 2000; Sample, 1992), 질적 방법을 사용한 음악교육 연구의 수록 비중이 높은 학술지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석문주, 2004; Lane, 2011; Yabrough; 2002, 2006).

연구 자료는 www.jstor.org, www.sagepub.com, www.proquest.com, www.journals.cambridge.org을 통하여 검색하였다.

연구 절차는 음악교육 동향 연구 및 질적 연구에 관한 저서들에 근거하여 분석을 위한 범주 및 분류 항목 설정 후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 항목을 수정한 후 2차 분석과 코딩을 거쳐 빈도(n)와 백분율(%)을 도출하였다. 2차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원자료부터 재검토하는 3차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그림 1).

절차	내용
연구 설계	학술지를 통한 음악교육 질적연구 동향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 설계
연구자료 선정	2000년부터 2011년까지 CRME, JRME에 수록된 음악교육 질적연구로 연구자료 선정
분석을 위한 범주 선정	연도, 연구영역, 연구대상, 연구방법, 자료수집법, 타당성 검증방식의 범주에서 분석
1차 분석	1차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분류 항목 수정
2차 분석	수정된 분석기준에 따라 2차 분석 실시
3차 분석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원자료 재검토 후 3차 분석 시행
해석 및 결과 도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음악교육 질적연구의 동향 파악

[그림 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개요

2. 분석을 위한 범주 및 분류항목

분석을 위한 범주 및 하위 분류 항목은 음악교육 관련 저서, 질적 연구 관련 저서, 음악교육 및 질적 연구 관련 학술지, 연구 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였으며, 1차 분석 후 빈도가 낮거나 발견되지 않은 범주 및 분류항목은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주는 연구 영역, 연구 대상 및 연구 참여자, 질적 접근법, 질적 자료 수집방법,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성 검증방법으로 설정하였다(최은식, 2000; 석문주, 2004; Creswell, 2007; Ebie, 2002; Hatch, 2008; Kantoriski & Stegman, 2006; Lane, 2011)(그림2).



[그림 2] 분석 범주 및 분류 항목

연구 영역은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사교육 및 교사인식, 음악교육 심리학, 음악과 교수-학습방법, 다문화 및 음악문화의 항목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영유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교사, 예비교사, 교육행정가 및 음악교육학자, 음악전문가, 일반 성인, 가족 및 단체의 항목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주 적용대상으로서와 둘째, 질적 연구에서 의미하는 연구참여자(research participant) 또는 정보제공자(informant)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질적 접근법의 분류는 크레스웰(Creswell, 2007)의 분류에 근거한 문화기

술지(ethnography),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y),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사례연구(case study)의 네 가지 방법론적 접근법과 특정 접근법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²⁾.

자료수집방법은 면담법(interview), 관찰법(observation), 인공가공물(artifacts), 연구자 현장조사지(field note), 연구자 반성일지(reflective journal)와 연구 참여자 반성일지, 기타자료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면담법은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포함하며, 관찰법은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을 모두 포함한다. 반성일지의 경우 참여자 반성일지와 연구자 반성일지를 구분하였다. 인공가공물은 연구 참여자에 의해 생성된 자료인 다양한 유형의 음악자료 및 악보를 비롯한 학생의 작품, 수업안, 이메일 내용, 회의록 등을 포함한다. 기타의 경우 참여자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 웹사이트나 위의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질적 설문자료 등을 포함한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 입증은 충분한 연구기간(prolonged engaged time of research),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 외부감사(audit),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연구자 요인의 여섯 가지 항목에서 살펴보았다(Lincoln & Guba, 1985; 이용숙 & 김영천, 1998; 크레스웰, 2007; Schuwandt, 2003). 녹음 및 녹화 등 보조자료 기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므로 타당성 검증방법 분석을 위한 분류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연구의 제한점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헌 연구와 혼합방법론(mixed method)을 사용한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술지에 수록된 회고록이나 논문평, 서평(book review),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의 경우 주 방법론으로 사용된 빈도가 낮아 1차 분석 후 분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음악교육 학술지 CRME, JRME에 수록된 질적 방법을 사용한 음악교육연구 8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CRME의 경우 전체 210편 중 49편(23.3%), JRME의 경우 전체 268편 중 32편(11.9%)의 연구가 질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부(2000년-2005년)와 후반부(2006년-2011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CRME의 경우 전반부에 발표된 질적 연구는 24.1%(21편), 후반부는 22.8%(28편)로 나타났고, JRME의 경우 전반부의 질적 연구 비중은 10.0%(14편), 후반부는 14.06%(18편)로 나타났다. 전체 질적 연구의 비율은 전반부 전체 연구 중 15.4%(227편 중 35편), 후반부 연구 중 18.3%(251편 중 46편)로 나타났다 (표 2).

<표 2> 2000년대 전반기 및 후반기 질적 연구의 수

학술지		전반(2000-2005)	후반(2006-2011)	합계(2000-2011)
		n	n	N
CRME	질적 연구 수	21	28	49
	비율 (%)	(24.1%)	(22.8%)	(23.3%)
	전체 연구 수	87	123	210
JRME	질적 연구 수	14	18	32
	비율 (%)	(10.0%)	(14.06%)	(11.9%)
	전체 연구 수	140	128	268
합계	질적 연구 수	35	46	81
	비율 (%)	(15.4%)	(18.3%)	(16.9%)
	전체 연구 수	227	251	478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에 따른 학술지별 질적 연구의 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학술지별 질적 연구의 수

연도	CRME	JRME	전체
	n	n	n
2000	3	1	4
2001	4	1	5
2002	1	3	4
2003	6	5	11
2004	2	2	4
2005	5	2	7
2006	3	2	5
2007	5	4	9
2008	5	3	8
2009	7	2	9
2010	6	4	10
2011	2	3	5
합계	49	32	81

2. 분석 범주별 결과

1) 연구 영역

CRME와 JRME에 수록된 질적 연구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음악 교사교육 및 교사경험(31건, 38.3%), 다문화교육 및 음악문화(16건, 19.8%), 음악교육심리(15건, 18.5%)로 나타났다(표 4).

<표 4> 연구 영역

연구 영역	CRME		JRME		전체	
	n	%	n	%	n	%
음악교육과정	2	4.1	2	6.3	4	4.9
음악교사교육 및 교사경험	21	42.9	10	31.3	31	38.3
음악교육심리	8	16.3	7	21.9	15	18.5
음악교수-학습	8	16.3	5	15.6	13	16.0
다문화 및 음악문화	8	16.3	8	25.0	16	19.8
기타	2	4.1	0	0.0	2	2.5
합계(N)	49	100.0	32	100.0	81	100.0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특정 음악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포함하였다.

교사교육 및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는 교사 전문성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교생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예비교사 기간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 학교 음악교사의 역할과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음악교육심리에 관한 연구는 음악인지과정, 음악학습 동기 및 인식, 음악적 발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아동이 만든 음악 기보양식을 통하여 사고과정을 살펴본 연구, 재즈 연주자의 즉흥 양식을 통하여 음악적 사고과정을 고찰한 연구, 초등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인지반응 연구, 연주경험에 관한 인식 연구, 음악 수업 선택의 동기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음악발달에 관한 연구는 유아의 음악 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성장과 연주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은 창작 및 연주, 감상 교수-학습, 수업계획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주수업, 창작 교수-학습 과정, 음악수업에서의 교실담화, 공연준비과정에서의 경험 또는 리허설 테크닉, 창작 교수-학습 과정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었다.

다문화 음악교수-학습과 학생 음악문화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음악 합주 경험, 세대 간 음악문화 차이, 타 문화권의 음악 교수-학습, 학교와 가정의 음악문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교육공학과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은 빈도가 높지 않아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 적용대상 및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연구 적용대상과 질적 연구에서 의미하는 연구 참여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적용대상의 경우 전체 81개의 연구 중 37편(45.6%)의 연구 대상이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로 밝혀져 음악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ME의 경우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6편으로 과

반수(53.1%)를 차지하였다. 교사(24편, 29.6%), 예비교사(13편, 16.0%), 중등학생(18편, 22.2%), 초등학생(10편, 12.3%), 유아(5편, 6.2%)의 순으로 연령대에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를 적용대상으로 한 연구는 예비교사 교육과 현장교사 재교육, 교직업무, 교사 지식 등 교사 경험과 인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합창 및 합주단 등의 음악 연주 및 공연 경험, 학교와 일상의 음악 문화, 악기나 악곡, 음악활동 선정 및 참여에 관한 인식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달과 관련된 음악 행동에 관한 연구와 유아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음악전문가에 관한 연구는 전문 재즈 음악가에 관한 연구, 비서구 문화권 연주자의 연주 및 교수기법, 문화적 정체성을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 기타는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아, 대학생 등을 포함한다(표 5).

<표 5> 연구 적용대상

연구 적용대상	CRME		JRME		전체	
	n	%	n	%	n	%
유아	2	4.1	3	9.4	5	6.2
초등학생	6	12.2	4	12.5	10	12.3
중등학생	9	18.4	9	28.1	18	22.2
교사	19	38.8	5	15.6	24	29.6
예비교사	7	14.3	6	18.8	13	16.0
음악전문가	1	2.0	1	3.1	2	2.5
성인 일반	2	4.1	1	3.1	3	3.7
음악 단체 및 가족	2	4.1	2	6.3	4	4.9
기타	1	2.0	1	3.1	2	2.5
합계(N)	49	100.0	32	100.0	81	100.0

연구 참여자의 경우 복수응답처리 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질적 연구 중 39편(48.1%)이 다중적인 연구 참여자를 포함하였으며, 교사(44건, 31.9%), 중등학생(18건, 13.1%), 교육행정가 및 음악교육학자(17건, 13.0%), 예비교사(16건, 11.6%), 초등학생(11건,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전체	
	n	%
유아	5	3.6
초등학생	11	8.0
중등학생	18	13.0
교사	44	31.9
예비교사	16	11.6
교육행정가 및 음악교육학자	17	13.0
음악전문가	7	5.1
성인 일반	3	2.2
음악 단체 및 가족	4	2.9
기타	12	8.7
합계(N)	138	100.0

교실에서 일어나는 음악수업에 관한 연구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의 음악수업에 관한 인식이나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도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나 학교 행정 관료까지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였다. 현장으로부터의 음악교육 연구의 의의와 안전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나 고등학교 교사의 교수동기와 음악수업에 관한 신념을 다룬 연구에서는 교사뿐 아니라 행정 담당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함께 이해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양측의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3) 질적 접근법

질적 접근법은 사례연구(24편, 29.6%)와 문화기술지(17편, 21.0%)의 빈도가 높았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CRME의 40.8%, JRME의 65.7%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접근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 질적 연구는 21편(25.9%)이 있었다(표 7).

<표 7> 질적 접근법

질적 접근법	CRME		JRME		전체	
	n	%	n	%	n	%
사례연구(case study)	13	26.5	11	34.4	24	29.6
문화기술지(ethnography)	7	14.3	10	31.3	17	21.0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y)	6	12.2	1	3.1	7	8.6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Inquiry)	1	2.0	0	0.0	1	1.2
일반 질적 연구	13	26.5	8	25.0	21	25.9
기타	9	18.4	2	6.3	11	13.6
합계(N)	49	100.0	32	100.0	81	100.0

사례연구는 연주 단체, 음악 수업, 예비교사 또는 교사재교육 프로그램 등 특정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 음악을 연주하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문화기술지는 청소년들의 학교 안팎의 음악문화를 다룬 논문, 다문화 악기 교수-학습 과정을 고찰한 연구, 다문화 연주단체의 성인학습자들의 동기와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악기 선택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원들의 협동연주 경험에 관한 연구, 숙련된 음악 교사의 전문성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기타(11편, 13.6%)로 분류된 접근법으로는 질적 프로그램 평가 모형(qualitative program evaluation model)을 적용하여 예비교사과정을 살펴본 연구, 예비교사교육에 관한 협동실행연구(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interview design), 교사의 자기성찰에 의한 실행 연구(reflective spiral research design), 반복비교연구분석(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data analysis)을 통한 교사평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사들의 봉사학습(service-learning) 참여 경험에 관한 상징적 상호작용적 접근(symbolic interactionist approach) 등이 있었다.

4) 질적 자료 수집법

전체 81개의 질적 연구 중 과반수인 44개(54.3%)의 연구에서 세 개(25.9%) 또는 네 개(28.4%)의 자료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자료원에 의존한 경우는 여섯 건(7.4%)이었으며 이 중 네 건이 면담법을 사용하였고, 두 건이 인공가공물을 자료원으로 사용하였다(표 8).

<표 8> 연구별 활용된 자료 수집원의 수

자료수집원의 수	전체	
	n	%
1	6	7.4
2	17	21.0
3	21	25.9
4	23	28.4
5	10	12.3
6	4	4.9
합계(N)	81	100.0

자료 수집법은 복수로 처리되어 총 268건이며 면담법(71회, 26.5%)과 관찰법(63회, 23.1%)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음악교과의 특성상 작곡, 연주의 악보나 녹음자료 등 학생 창작물과 교사의 교수-학습 자료가 주를 이루는 인공가공물도 49회(18.1%)로 밝혀졌다. 기타는 질적 설문지법, 관련 웹사이트 참조, 사적인 대화 내용의 녹음 기록 등이 있었다(표 9).

<표 9> 질적 자료 수집방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전체	
	n	%
면담(interview)	71	26.5
관찰(observation)	63	23.1
인공가공물(artifacts)	49	18.3
연구자 현장조사지(field note)	38	14.2
참여자 반성일지(researcher reflection)	19	7.1
연구자 반성일지(participant reflection)	19	7.1
기타	10	3.7
합계(N)	268	100.0

5) 타당성 검증 여부 및 방식

질적 연구의 타당성은 한 연구에서 한 가지(23회, 28.4%)와 두 가지(21회, 25.9%)의 타당성 입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 연구의 과반수(54.3%)를 차지하였고, 세 가지(16회, 19.8%)나 네 가지(7회, 8.6%)의 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논문에 연구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연구 정황상 타당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전체 81건의 논문 중 12건(14.8%)이었다(표 10).

<표 10> 연구별 활용된 타당성 검증법의 수

타당성 검증법의 수	전체	
	n	%
0	12	14.8
1	23	28.4
2	21	25.9
3	16	19.8
4	7	8.6
5	2	2.5
합계(N)	81	100

질적 연구의 타당성 검증 방법도 복수로 처리되어 총 151건이며, 연구 참여자 검토(42회, 27.8%)와 삼각검증법(40회, 26.5%)이 많이 사용되었고, 외부감사도 30회(19.9%) 사용되었다(표 11).

<표 11> 질적 연구의 타당성 검증방법

타당성 검증방법	전체	
	n	%
충분한 연구 기간	6	4.0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40	26.5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	6	4.0
외부감사(audit)	30	19.9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	42	27.8
연구자 요인	17	11.3
기타	10	6.6
합계(N)	151	100.0

삼각검증법은 두 개 이상의 자료원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한 자료 다원화의 방식과 공동 연구자들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 및 해석한 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해석의 다원화에 의한 삼각검증법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자 요인은 연구 영역에 관한 연구자의 전문성, 자질과 경력 등을 명시하여 연구도구로서의 연구자의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문화 음악 교수-학습 연구에서 연구자의 문화적, 언어적 진위성(authenticity)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 경우도 있었다.

기타는 연구 현장의 상황에 익숙한 관찰자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보충한 경우, 유아가 지은 노래의 사보와 녹음 내용의 대조를 위해 외부 검증을 의뢰한 경우, 타 문화권의 교수-학습상황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현지인 연구보조원을 활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3. 논의

첫째, 2000년과 2012년 사이 미국의 음악교육 학술지 JRME와 CRME에 수록된 음악교육 질적 연구는 해당 기간 전체 연구의 16.9%(478편 중 81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서술연구나 문헌연구에 비하여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질적 연구법을 적용한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보다 낮은 비율이다. 질적 연구의 특성인 다원화된 인식론적 기반, 상대적으로 긴 연구 기간, 실제 맥락과 현장을 전제로 한 연구 설계, 표준화가 어려운 방법론, 연구 도구인 질적 연구자 양성 문제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전반기(2000년-2005년)와 후반기(2006-2011)의 전체 논문 중 질적 연구의 비율은 CRME의 경우 24.1%(21편)에서 22.8%(28편)로 감소하였으나, JRME의 경우 10.0%(14편)에서 14.06%(18편)으로, 두 학술지 전반기 연구의 15.4%(35편)와 후반기 연구의 18.3%(46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CRME와 JRME에 나타난 미국의 음악교육 질적 연구는 1990년대부터 뚜렷한 양적 증가세를 보였다. JRME에 발간된 음악교육 질적 연구의 편수는 1984년부터 1995년 사이에 8편, 1996년부터 2005년 사

이에 17편으로 증가하였다(Yarbrough, 2006). 석문주(2004)에 의하면 CRME의 질적 연구의 수는 전반기(1993년-1998년)와 후반기(1999년-2004년)에 각각 16편에서 41편으로, JRME의 경우 7편에서 16편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Lane(2011)의 연구도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CRME와 JRME에 수록된 질적 연구의 편수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표 1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미국의 학술지 CRME와 JRME를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 질적 연구의 양적 양상은 1980년대에 처음 수록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한 후 2000년대에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선행연구에 나타난 시기별 질적 연구 편수*

연구자 (연도)	학술지	전반기(연도)		후반기(연도)		
		논문 편수(%)**		논문 편수(%)**		
석문주 (2004)	CRME	1993-1998		1999-2004		
		16(10.1%)		41(22.9%)		
	JRME	1993-1998		1999-2004		
		7(4.5%)		16(14.3%)		
Yarbrough (2006)	JRME	1984-1995		1996-2005		
		8(3.10%)		17(6.07%)		
	Lane (2011)	CRME	1983-1989		1990-1999	
			0(0%)		2(2%)	
JRME		1983-1989		1990-1999		
		3(1%)		5(2%)		
CRME와 JRME의 합계		1983-1989		1990-1999		
		3(1%)		7(2%)		

* 연구자에 따라 다른 분석 범주를 적용하였으므로 논문의 편수에 차이가 있음.

** 백분율(%)은 해당 시기의 해당 학술지 전체 논문 수 중 질적 연구의 비율을 뜻함.

둘째, 학술지 JRME와 CRME에 수록된 음악교육 질적 연구들은 교사교육 및 교사경험 등 음악교사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악교육 논문의 연구 영역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할 때 질적 연구에서 교사주제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미숙, 2001; 석문주, 2004; Yarbrough, 1984). 특히 연구자 콘웨이(C. Conway)는 본 분석 대상인 81편의 질적 연구 중 11편의 교사교육 및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적용대상 및 연구 참여자 역시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Draves et al., 2008; Ebie, 2002; Kratus, 1992; Yarbrough, 1984)이나 초등학생(석문주, 2004; Schmidt & Zdzinski, 1993)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선행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질적 연구의 관심사는 사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에서의 경험, 상호 작용 등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 객체로서의 피험자(subject) 또는 응답자(respondent)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연구의 조력자로서 직접적인 정보제공자로 간주되는 것이다(조용환, 1998; 크레스웰, 1997; 해치, 2008; Van Manen, 1990). 따라서 교사 및 예비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로서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교수)가 직접 수행한 질적 연구가 다수 있었다. 초, 중등부터 예비교사 및 교사 연수까지 다양한 유형의 음악 수업 및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질적 접근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 현장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발견 및 진단하고 해결과 개선 방안을 제안, 적용할 수 있는 교사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다문화 교육 및 음악문화에 관한 주제는 음악교사교육 및 교사경험에 이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음악교육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던 영역으로써 문화기술지와 같은 방법론의 영향으로 새롭게 조명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관습의 변화로 인하여 문화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효용이 커지는 시대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필요와 음악을 접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음악교육에서도 다문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방안, 대중음악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음악교육 연구의 시야를 넓히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질적 접근법에 있어서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지에 대한 편중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학술지의 질적 연구 방법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음악교육 질적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지의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Kantorski & Stegman, 2006; Lane, 2011).

다양한 질적 접근법들은 질적 연구 실행의 수단으로써 방법론적 기능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점을 결정짓는 철학적 가정을 내포한다. 전반적으로 내러티브 연구는 인문학에, 현상학적 연구는 심리학과 철학, 문화기술지는 인류학과 사회학, 사례연구는 인문사회과학과 평가연구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인식론적 배경에서부터 질적 연구의 설계 과정이 시작되며 연구자가 자신을 도구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Creswell, 2007).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음악교육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접근법의 선택과 질적 연구에서의 인식론적 기반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를 발견하였다.

본 분석에서 제기된 음악교육 질적 접근법에 관한 또 다른 논의점은 유연성과 복합성이다.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질적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거나, 한 가지의 질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다른 접근법의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사례연구는 구조적인 틀을 제공하면서 인식론적 틀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나 문화기술지 같은 접근법을 취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 설계는 사례연구이면서 자료수집과 해석에 문화기술지적 접근(case study using ethnographic approach)을 적용하여 교사 경험을 연구한 경우, 문화기술지적인 사례연구설계(ethnographic case study design)를 통하여 이민자 고등학생의 음악 경험을 연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사례연구이면서 현상학적 원칙들을 적용하여 교직에서의 일상 경험을 연구하거나, 사례연구이면서 문화기술지와 현상학적 전략(ethnographic and phenomenological

strategies)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면담, 관찰 등 언어화를 통한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자료뿐 아니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 교수-학습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들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물로 분류되었다. 아동이 음악을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기록한 그림 악보들, 아동들이 음악 감상 후 언어뿐 아니라 시각적, 신체적으로 표현한 자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음악 및 악보를 포함한 비언어 자료들의 수집, 분석 및 해석은 다른 분야와 차별되는 음악교육 질적 연구의 고유한 영역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IV. 결론 및 제언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의 미국의 학술지 CRME와 JRME에 수록된 논문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음악교육 질적 연구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질적 방법을 사용한 음악교육 연구는 전체 연구 478편 중 81편으로 16.9%를 차지한다.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CRME의 경우 23.3%(210편 중 49편), JRME의 경우 11.9%(268편 중 32편)로 CRME의 질적 연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음악교사교육 및 교사인식(31편, 38.3%)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영역이었으며, 다문화 및 음악문화(16편, 19.8%)-음악교육심리(15편, 18.5%)-음악과 교수-학습(13편, 16.0%)이 그 뒤를 이었다. 학술지 CRME의 경우 42.9%에 해당하는 21편의 연구가 교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JRME(10편, 31.3%)보다 교사연구에 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7편(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학생(18편, 22.2%)-초등학생(10편, 12.3%)-유아(5편, 6.2%)의 순으로 나타나, 음악교육 질적 연구에서 교사에 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항목에서도 예비교사와 교사의 비중(45.6%)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연구 중 39편(48.1%)에서 다중참여자를 포함하였다.

사례연구(24편, 29.6%)와 문화기술지(17편, 21.0%)가 전체 81개 질적 연구

의 50.6%인 41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접근법을 밝히지 않은 일반 질적 연구는 21편(25.9%), 현상학적 연구는 7편(8.6%)이었다. 이외에도 질적 프로그램 평가, 실험연구 등이 있었으며, 다양한 조합의 방법론적 혼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질적 자료 수집의 경우 다중 자료원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네 가지(23편, 28.4%)-세 가지(21편, 25.9%)-두 가지(17편, 21.0%)의 순서로 75.3%(61편)에 해당하는 연구가 2-4개의 자료원을 활용하였다. 5-6개의 자료원을 사용한 연구도 14편(17.2%)이 있었다. 자료 수집법은 면담법(71회, 26.5%)과 참여 및 비참여 관찰법(63회, 23.1%)의 활용도가 높았고, 인공가공물(49회, 18.3%)-연구자 현장조사지(38회, 14.2%)-참여자 반성일지(19회, 7.1%)-연구자 반성일지(19회,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중 85.2%(69편)의 연구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 검증 방식은 연구 참여자 검토 42회(27.8%)-삼각검증법 40회(26.5%)-외부감사 30회(19.9%)-연구자 요인 17회(11.3%)-심층기술과 연구기간이 각각 6회(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행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 질적 연구에서 교사경험, 교사인식,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연구자로서 교사에 관한 조명이 필요하다. 실험연구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질적 접근을 통하여 교사 전문성 및 교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음악교육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적 연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의 일반성과 타당성에 관한 개념적 접근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검증 기법적 측면, 실제 연구의 적용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음악교육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의 질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이 요구된다.

셋째, 질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음악교육연구 현상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뒷받침으로 음악교육을 포함한 예술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상과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음악교육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미숙 (2001). JRME (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 1-19.
- 김영천 (1997).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과 그 예－문화기술지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교육학연구**, 35(1), 225-251.
- 석문주 (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 이용숙, 김영천 (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1998).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이용숙, 김영천 (편),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pp. 3-21).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 연구**, 2(2), 27-63.
- 최은식 (2000). 21세기 한국음악교과교육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음악교육학회 제 2분기 학술발표자료.
- Hatch, A. (2008).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진영은 역. 서울: 학지사.
- Allsup, R. (2003). Mutual learning and democratic action in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1), 24-37.
- Bamberger, J. (1977). Intuitive and formal musical knowing. In S. Madeja (Eds.), *The arts, cognition, and basic skills*. St. Luis: CEMREL.
- Bresler, L. (1987). *The role of the computer in a music theory class: Integration, barriers and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Bresler, L. & Stake, R. (199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music education, In R. Colwell (Ed.), *The handbook on research i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pp.75-90). New York: Macmillan.

- Britten, R. V. & Standley, J. M. (1997). Researcher in music education/therapy: Analysis of publications, citations, and retrievability of work.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1), 145-161.
- Creswell, J.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A: Thousand Oaks.
- DeLorenzo, L. (1987). *An exploratory field of sixth grade students' cla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Draves, Y. et al. (2008). Subjects in music education research: 1991-2005.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76, 19-29.
- Ebie, B. (2002). Characteristics of 50 years of research samples found in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2002.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280-291.
- Elliott, D. (2002).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research. In R. Colwell & C. Richardson (Eds.), *The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A project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pp. 85-102). New York: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Flinders, D. J. & Richardson, C. L. (2002). Contemporary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and music education. In R. Colwell & C. Richardson (Eds.), *The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A project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pp. 1159-1175). New York: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Grashel, J. (1998) Women as researchers publications in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94.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1), 17-26.
- Grashel, J. & LeBlanc, A. (1998).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The first three decade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8, 1-18.

- Hamann, D. & Lucas, K. (1998). Establishing journal eminence in music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3), 405-413.
- Humphreys, J. & Stauffer, S. (2000). An analysis of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1992.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1), 65-77.
- Jackson, P. (1968). *Life in classrooms*. NY: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 Kantorski, V. & Stegman, S. (2006). A 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dissertations in music education, 1998-2002.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8, 63-73.
- Kratus, J. (1992). Subjects in music education research 1961-1990. *The Quarterly Journal of Music Teaching and Learning*, 3(4), 50-54.
- Lane, J. (2011). A descriptive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in two eminent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8, 65-76.
- LeBlanc, A. & McCrary, J. (1991). Acquiring criteria of excellence for scholarly journals in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9(3), 206-215.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iles, M. & Huberman, A. (1984). *A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rice, H. & Chang, E. (2000).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s. *Update: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2), 19-27.
- Sample, D. (1992). Frequently cited studies as indicators of music education interests, 1963-1989.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2), 153-157.

- Schmidt, C. & Zdzinski, S. (1993). Cited quantitative research articles in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s, 1975-1990: A content analysis of selected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1), 5-18.
- Schwandt, A. (2003). *The sage dictionary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s. CA: Sage Publications.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andley, J. M. (1984). Productivity and eminence in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3), 149-158.
- Upitis, R. (1985). *Children's understanding of rhythm: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and musical 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SUNY
- Yarbrough, C. (2002). The first 50 years of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276-279.
- Yarbrough, C. (198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1983.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4), 213-222.
- Yarbrough, C. (2006). Editor's report: The status of the JRME, 2006.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4(2), 92-96.

ABSTRACT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Shin, Hae-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issues and the state of music education research using qualitative methods, as published in th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CRME) and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JRME) from 2000 to 2011. Using descriptive analysis, 81 qualitative studies, which were 16.9% of the 478 research articles published overall in both journals, were classified along with the publication year, subject areas,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methods, data collection methods, and methods of valid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eacher experience and teacher education (38.3%) were the most researched topics, followed by student musical culture (19.8%), including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Both in-service (31.91%) and pre-service (11.6%) music teachers represented the highest propor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followed by secondary students (13.0%). Case study (29.6%) and ethnography (21.0%) were used most, while non-specified qualitative methods accounted for 25.9% of the total. To collect qualitative data, 54.3% of the studies used 3-4 data resources, and interviews and observations were the most frequently applied methods. To validate the trustworthiness of qualitative research, the member-check was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followed by triangulation and audit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music education are provided.

key words: research in music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method

투고일: 2013년 2월 26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30일), 게재 확정일: 5월 9일